

## 롯데케미칼,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약 6020억 투자...소재 경쟁력 강화

등록 2022.02.07 09:30:59

7일, 충청도청에서 투자협약식 진행

충청남도·서산시, 사업 추진 행·재정 지원에 최선

롯데케미칼,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노력



[서울=뉴시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롯데케미칼이 친환경, 스페셜티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롯데케미칼은 7일 충청남도, 서산시와 충청도청에서 공장 신·증설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 서산시 맹정호 시장, 롯데케미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롯데케미칼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6만7500㎡ 부지에 약 602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 공장 및 CO<sub>2</sub> 포집 및 액화 설비 신설, EOA 및 HPEO 공장 증설, 원료 설비 효율화 등을 진행한다.

먼저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인 고순도 EC(에틸렌 카보네이트)와 DMC(디메틸 카보네이트) 공장을 건설한다. 고순도 EC와 DMC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전해액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유기용매다. 유기용매는 전해액 원가 비중의 약 30% 정도를 차지해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투자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재의 국산화에도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은 탄소 포집 및 활용(CCU: Carbon Capture, Utilization) 파일럿 설비의 실증 운영을 마치고, 2023년 하반기 내

상업생산을 목표로 20만톤(t) 규모의 CO<sub>2</sub> 포집 및 액화 설비를 건설한다. 이를 통해 포집된 CO<sub>2</sub>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전해액 유기용매 소재인 고순도 EC, DMC의 원료로 투입하는 한편 드라이아이스, 반도체 세정액 원료 등 외부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층빌딩, 교량, 댐 등 대형 구조물 건설 시 콘크리트에 투입되는 감수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건축용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인 EOA(산화에틸렌유도체, Ethylene Oxide Adduct)의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의 연간 EOA 생산량은 기존 33만에서 향후 48만으로 대폭 증가한다. EOA 및 고순도 EC와 DMC의 원료 확보를 위해 HPEO(고순도 산화에틸렌, High Purity Ethylene Oxide)도 25만t 규모로 함께 증설한다.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틸렌 생산 원료인 LPG(액화석유가스) 사용량을 현재의 10% 수준에서 약 30% 수준까지 사용할 수 있게 원료 설비 효율화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원료 시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원료를 선택 투입함으로써 운영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친환경-스페셜티 강화 및 이를 뒷받침할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목표를 구체화하고, 지속가능기업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 대표는 "이번 투자는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 및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등 친환경 스페셜티 화학 소재 확대를 위한 Green Promise 2030의 핵심적인 발걸음"이라며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당사의 주요 성장 발자취를 함께 해 온 오랜 동반자로, 롯데케미칼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